

익산시, 고택·종갓집 사업 운영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체험 프로그램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31일 진행… 14일부터 신청

익산시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오는 31일 근현대 시조문학의 선구자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무대로 하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삼복지인 가람이어라’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가람에 살아라했다 △가람의 발자취 등 3가지로 이뤄졌으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병기 선생의 생가이자 전북 특별자치도 기념물인 ‘수우재’를 중심으로 고택과 종갓집이 가진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시조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람 이병기 선생은 ‘현대시조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조문학의 발전과 고전 국어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수우재는 1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초가 고택으로 안채·사랑채·고방채로 구성돼 있으며, 고즈넉한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다.

오는 31일 진행되는 첫 프로그램 삼복지인 가람이어라는 전통의 ‘세 가



자 복(福)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문화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전통 가양주 ‘호산춘’ 시음, 난초 시조 쓰기, 약밥 만들기 등을 통해 고택의 삶과 문학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가람에 살아라했다’는 전통 건축물을 탐방하며, 가람 선생의 삶과 자연친화적 생태가치를 연결 짓는 인문학 체험이다. 탕자나무 이야기, 전통 건축의 지속 가능성 등을 통해 아동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가람의 발자취는 가람 선생의 문학작업적 업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말모이 만보캘린지와 현대 시조

쓰기 등을 통해 언어와 문학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또한 ‘수우재 별빛 음악회’는 전통 고택의 감성을 음악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www.마수리늘배움협회.com)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837-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과 방문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

7월 조직개편으로 통합돌봄 전담계 신설·본격 사업 운영 예정

익산시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보건 의료(진료, 간호, 재활,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으로 통합돌봄 전담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 △전문기관 협업 △통합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통합지원 모델을 설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돌봄 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통합돌봄을 실현해 사는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익산시의 노인 인구는 6만5,670명으로 전체 인구 26만7,629명 중 24.5%를 차지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약 9,300명으로 추정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불 신속 대응 태세 ‘이상무’

산불방지 인력 114명 참여…진화차량·무전기 등 주요 장비 일제 점검

익산시가 산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산불위험지수 하락과 기상 여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산불 발생에 대비해 주요 장비 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에는 산불방지 인력 114명이 참여했으며, 시가 보유한 4대의 산불 진화 차량을 비롯해 △무전기 △계도망 송출 앰프 △휴대용 진화 장비 등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모든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했으며, 현장 대

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운용 교육도 진행됐다.

시는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무단 소각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자제를 당부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상가 공실률 해소 대책 회의 개최

군산시가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송·조운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2.9%로 2024년 4분기 (21.7%)보다 1.2%p나 증가하여 상권 전반에 위기가 감도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열렸던 대책 회의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8개 부서가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공실 문제의 원인 분석 △대안 모색 △지역 상권 활

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임대료 문제가 주로 꼽혔으며, 해결방안으로는 △공공 임대 상가 조성 △청년 창업 지원 △예술 활동 장소 지원 등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실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 취합과 발굴을 결정했고, 앞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스마트도서관’

첫 도입·시범운영 시작

군산시가 첫 무인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을 공설시장 북문 앞 광장에 설치하고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스마트도서관(Smart Library)’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체계로, 군산시에서는 이번이 첫 도입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독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전통시장과 시민이 함께 머무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에는 신간 도서와 인기 도서를 중심으로 약 50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이용 방법은 기기 내 안내 화면이나 배너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lib.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063-454-5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마포구 어린이 축제’ 참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김임준, 이하 ‘센터’)가 ‘제15회 마포구 어린이축제 빨노파, 꿈을 피워라’ 행사에서 전통문화 체험 부스, 군산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는 군산과 서울 도심간의 먹거리 연계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도심 속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청 광장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센터는 홀대·모형 낫·나무절구·지게 등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관심을 모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